

## 94학년도 大學入試를 평가한다

### 〈좌담참석자〉

김재문(전남대 교무처장)

김준석(연세대 입학관리처장)

백충현(서울대 교무처장)

염영일(포항공대 교무처장)

전성연(고려대 입시관리위원장)

정규찬(영남대 교무처장)

정병조(동국대 교무처장)

—가나다순—

### 1. 이번 94학년도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성연 :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대학입시 제도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본고사를 채택했던 일부 대학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시는 몇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제도는 너무나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각각 성격이 다른 입시요소, 즉 고등학교 내신, 본고사, 수학능력시험 등을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새로운 입시제도의 채택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는 일부 매스컴의 평가도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현재 방향을 못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본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에 고등학교도 금년에 많은 내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병조 :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였지요. 다만 복수지원에 따른 등록금 환불 등의 혼란이 있었던 점은 보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내신·본고사의 구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반영비율이나 본고사의 실시여부 등은 철저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번 입시제도를 아주 잘못된 듯이 말하지만, 그 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요컨대 ‘어떻게’ 단점을 극복하느냐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충현 : 94 대학입학시험 제도개선 작업은 교육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폭넓은 참여가 부족하였던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

적할 수 있습니다만,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국가와 대학, 고등학교가 참여하게 되어 종전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대학의 다양한 입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일부 획일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고등학교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시제도의 초년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교육당사자는 물론 수험생들의 혼란이 야기된 면이 없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제도가 학교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입시자료의 필요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한 점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준석** : 94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번 입시를 통하여 학생 선발의 획일성을 탈피하게 되었으며, 논술고사와 주관식 위주의 본고사 도입으로 이른바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고교교육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규찬** : 94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교육개혁심의회가 85년부터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건의 내용을 6년 동안 연구한 것으로 종전의 암기식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추구를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보며, 전형방법은 대학의 자율에 따라 대학별고사 시행대학과 미시행대학으로 양분하여 시행되었으나 첫째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학능력시험의 계열구분 없는 동일출제로 인한 변별력 상실, 2회 시행으로 수험생의 부담 가중, 국립교육평가원 입시부정 한파로 인한 당초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축소, 복수지원에 따른 혼란 및 눈치지원 확산과 이중합격자 양산 등 당초 취지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증이 많았다고 봅니다.

**김재문** : 이번 입시의 특징은 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이에 따른 선시험 후지원 방식 그리고 복수지원의 허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치르지 않아 선시험 후지원 방식을 따르다 보니 극심한 눈치 작전이나 무더기 지원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고사 실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수지원허용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염영일** : 저희 포항공대의 경우 개교이래 제일 복잡한 입시를 치렀습니다.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만으로 특차전형을 치렀고 본고사로 일반전형을 치러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다행히 1992년 9월부터 본고사 및 입시관리를 준비하여 왔기에 무난히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소 힘들었던 점은 복수지원을 할 수 있는 상대 대학들이 일정을 1월 6,7일로 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예비소집, 본고사, 면접으로 4일정도 소요됨을 감안해 복수지원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 본고사를 치르고 교육부가 정한 등록일인 1월말 이전에 등록을 끝내기엔 무리하게 짧은 일정이었었습니다.

전반적인 94학년도 대학입시평가는 우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복수지원의 허용으로 우수학생 채수 방식에 큰 기여를 하였고 수능 성적과 내신성적만으로 본고사를 치른 9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입시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선 서울대와 입시 일정을 같이한 대학의 경우 미등록발생, 그 후 추가 모집사태가 나타났으며, 달리한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했으나 허수지원자 및 허수응시자 때문에 수험진행에 애로가 많았으며 경험이 부족한 대학에선 총원작업에 힘이 들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측면에선 입시에 수능 및 내신성적을 반영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귀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법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 : 고려대학교의 입시정책은 내신 40%, 수능시험 20%, 본고사 40%로 되어 있으며 일반전형에 앞서서 특차전형으로 25%의 학생을 뽑

았습니다.

13년만에 부환되는 대학본고사에 대비하여 고대는 92년 9월에 대학입학시험 출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주관 아래 93년 10월까지 총 5회에 걸친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대학나름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4회에 걸친 등화연구(선택과목간의 통계적 표준화점수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고사에서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모의고사와 본고사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였던 대원칙의 하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상황을 존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주를 벗어나고, 지나치게 어렵고 비비꼬인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과외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94학년도 입시결과는 고대의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정병 :** 저희 동국대는 내신 40%, 수능 60%만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막판까지 본고사 실시여부로 고민하였습니지만, 대다수의 중상위권 대학이 포기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우리도 본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고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관리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문·자연계의 교차지원에 관해서 총점의 1%를 감점하였는데, 그 확인작업이 번거롭고 까다로웠습니다.

**백 :** 서울대에서는 1990년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시제도의 시행 준비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입시제도의 시행에서도 대학수학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적 기능 강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 고교 교육 현실, 수험생들의 바람과 학부모의 기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의견 수렴과 학내 절차를 거쳐 1992년 4월 단과대학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학별고사를 4 과목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 20%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40%를 반영하는 제도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중심기구로 입시센터를 개설하고 입시의 종합관리와 출제 및 전산 연구위원회를 구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93년 3월에 대학별고사 출제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2회에 걸친 실험평가를 통하여 고등학교와 수험생의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새 입시제도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교내신제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고, 특히 13년만에 부환된 대학별고사로 지칭되는 대학 본고사의 유형 개발과 자료 축적은 많은 교수와 행정요원이 총력을 기울인 노력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김준 :** 연세대학교에서는 특차전형을 통하여 정원의 20%를, 일반 전형을 통하여 정원의 80%를 뽑았는데, 고교내신 성적과 수학능력시험 성적, 그리고 본고사 성적을 각각 40%, 30%, 30%씩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본고사 과목은 2개의 필수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원주캠퍼스의 각 학과와 서울캠퍼스의 예체능계는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형 방식은 될 수 있는 한 우수한 지원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함과 아울러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대체적으로 잘 살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형과정이나 선택과목을 다양화시킨 결과 관리상의 복잡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규 :** 저희 영남대에서는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하여 학내 재직교원의 설문조사와 대구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시대책연구위원회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출제할 과목의 과다 지정 및 경험미숙, 시간의 촉박, 과대한 예산지출 등의 악조건 때문에 유보하기로 하고, 내신 성적(40%)과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60%)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입시관리 업무는 단순화 되었으나 선발시기 일정이 늦어 시간에 쫓기었고 이 중합격자의 등록금 환불 및 충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부작용이 노출되었습니다.

**김재 :** 저희 전남대학은 본고사를 치르지 않고

500점 만점에 수학능력시험 60%(300점) 내신성적 40%(200점)의 비율로 반영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면접고사와 교직적성 및 인성 시험을 각각 총점의 5%씩 점수화 하였고 예체능계는 총점의 25~30% 실기고사 점수가 있었습니다. 제 1지망과 제 2지망으로 나누어서 제 1지망에서 90%(공대와 사회대는 85%) 선발하고 나머지는 제 1지망의 탈락자와 제 2지망 지원자들 가운데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본고사가 없다보니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나타난 안정 하향지원과 극심한 눈치 작전 그리고 배짱지원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결과 소위 배짱지원자 129명을 정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추가모집을 하였습니다. 이 배짱지원자 처리 기준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고심들을 많이 하였는데 저희 대학은 학과별로 상위 85~90%(공대와 사회대는 85%, 기타 90%)의 평균을 내서 이로부터 50점이상 미달한 사람은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85~90%라는 기준은 제 1지망의 선발비율입니다. 저희 대학은 원서 접수과정에서 무더기 배짱지원은 공개하겠다고 공고를 해 놓아서 그런지 무더기 지원 사태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어느 지방 국립대학에서 발생한 소위 입시돌격대 사건이 앞으로 전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령 지원상황을 공개할 때 수능성적 120~130점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염영** : 포항공대는 지난 90년에 자체 대학입시 개선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해 타대학보다 앞서 본고사로 전형을 치르는 입시방안을 교육부와 합의하였으나 93년 8월 새로 부임한 교육정책담당자로부터 여지껏 합의하여 온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특차전형으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40%를, 일반전형으로 나머지 60%를 선발하여 제한적이나마 수험생들에게 복수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시요강을 확정했습니다.

특차전형선발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을 60 : 40의 비율로 종합평가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사정을 실시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본대학의 특성상 수능의 수리탐구 영역

역에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일반전형의 선발과정은 1차시험, 2차시험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차시험은 전체지원자 중 수능성적순으로 학과별 전체모집정원의 6 배수를 선발하였으며 수능의 영역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고 계열별교차지원에 따른 감점제도는 없었습니다. 2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 성적과 내신성적을 50 : 50의 비율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본고사는 수학과 과학(물리와 화학 중 택일) 과목으로 70 : 30의 비율로 총배점은 2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과목의 점수치리는 표준점수제를 도입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은 2차시험응시자 전원에게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입시결과는 특차전형에 정원 120명 모집에 338명의 원서가 접수됐는데 사정결과 수능성적이 평균 180.0점이나 되었으며 180점 이상인 수능고득점자 학생도 24명이나 탈락할 정도로 본대학을 지원하는 소신있는 우수학생선발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전형의 경우 정원 180명 모집에 2,566명이 지원하여 1,811명(동점자 포함)을 1차시험에서 선발하여 본고사를 치렀습니다. 이들 1차 합격자의 수능성적평균이 175.3점으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본고사의 경우 결시자를 제외한 1,743명의 응시자 중 1,266명이 서울대와 복수지원을 하였고 결과는 이 중 937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사정결과 각 학과의 합격자가 180명의 3 배수 내외에서 충원됐으며 수능평균이 173.8점이었습니다.

본대학의 본고사로 평가할 경우 서울대 불합격생들도 본대학에 합격한 경우, 본대학 충원 외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경우 등을 감안할 때 복수지원의 근본취지인 우수학생 제수방지에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봅니다.

입시관리상 어려웠던 것은 복수지원으로 본대학에 소신이 적은 학생들의 지원이 많아 소신지원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준 점과 그로 인해 충원 과정을 어렵게 거친 점입니다.

### 3. 이번 입시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수능시험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 : 수학능력시험은 아직도 그 성격이 모호한 시험입니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력고사라고도 보기 어렵고, 적성검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연구팀에서는 발전된 형태의 학력 검사라고 하지만, 발전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이론이나 실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교사가 두 교과에 걸치는 수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시험준비용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시험 문제만 그러한 형식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은 상위권 학생에게는 변별력이 있었으나 중위권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 변별력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복수지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학능력시험과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복권추첨이나 주택 청약 현장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은 우리가 보아온 바입니다.

시험을 2회에 걸쳐 실시한 것도 문제이고, 시험의 영역도 문제입니다. 수학Ⅱ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탐구라는 명칭하에 교과이기주의가 잠입하여 있음도 보았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그 기본적인 성격,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 실시과정 등에서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 : 수능시험은 대체로 무난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횟수는 1회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업진행을 생각해서 11월 하순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내용을 보면 우선 배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를 대학이 실시하면 별문제가겠지지만, 국·영·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또 다른 과목의 경우

에도 전 과목을 고루 출제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난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목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백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시험횟수라든가 시험시기 등에 대해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탈교과적이고 통합교과적으로 시행하는 평가 방법 및 내용의 이 시험을 계기로 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등 종전의 학력고사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발전된 형태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형태 시험의 한계점과 난이도 문제 등은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할 학생선발 자료로서는 미비한 평가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학능력시험 결과의 반영 방법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시험 결과를 응시 자격시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활용도가 다양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준 : 전체적으로 종래의 학력고사와 달리 신입생의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수능시험은 지식 평가의 도구로서 작용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적성검사적 성격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험 결과도 점수화되어서는 안 되고 패스/페일(Pass/Fail) 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시기는 고교 교과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1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어 2회 정도 실시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결과가 표준화되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특정한 시기에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유리하다든가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규 : 과거 주입식 암기식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사실적 비판적 능력측정과 주어진 자료에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열구분 없이 연중 2회 시험실시는

변별력 상실과 입시부담 가중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중 11월 1회로 제한하고 인문, 자연계열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 :** 이번이 처음으로 도입된 수학능력시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와 2차 시험의 난이도 조절의 실패나 전시험 후지원에 따르는 눈치지원 등의 약점이 노출되긴 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시행상의 문제로서 보완해나가야 할 문제이지 수능시험 자체를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 입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변별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시제도를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염 :** 94년도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에 2번을 치렀던 점, 난이도 조절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이 입시업무실제로 담당하면서 더욱 더 심각함을 체험하였습니다. 포항공대의 경우 특차전형은 수능시험 백분위 등위로 상위 1% 이내인 자로 정하였던 바, 예로 1차 수능 백분위로 99.23%의 수능성적이 173.4점인 데 비해 2차수능은 오히려 높은 99.28%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성적은 훨씬 낮은 157.0점으로 당연히 2차수능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도 절대적인 성적이 떨어진 상황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전체지원자 중 8%가 2차 수능성적을 제출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잘 살리되 수능시험 횟수는 연 2회도 무방하나 가급적 시험 간격을 짧게 하여 (2주 정도) 수험생에게 최고점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등학교 2학년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난이도 조절이 힘들 경우 두 시험을 표준화하는 제도를 구상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수능성적 운영면에서 현행제도는 수능성적 통지가 우선 각 고등학교로 가고 수험생에게 전달되며 대학에 입시원서를 작성할 당시엔 수능성

적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의 노고는 물론 훼손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성적이 바뀌는 경우 수험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한 예로 수능성적이 다른 학생과 바뀌어 온 경우가 몇 건 있었으며 성적도 잘못 옮겨적은 경우는 흔하였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전산을 이용하여 지원자 현황을 대학에서 직접 교육평가원과 연락하여 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 4. 고교내신제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고교내신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40%의 의무반영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설령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신점수 산출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신산출은 학업성취도만이 실제로 반영될 뿐, 출석이나 행동발달 상황은 있으나마나한 항목입니다. 또 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주먹구구식이어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신반영율을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을 평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개선된 내신제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고등학교 출신 입학생 수, 입학한 학생들의 본고사 성적, 대학에서의 추가적인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내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내신제도는 내부부의 도시 인구 억제 정책의 세부 방안이라는 점 외에 특별한 교육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병 :** 고교내신은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8학군과 강북의 내신평점, 서울과 지방, 외국어고와 일반고 등을 과연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냐 하는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고교 평준화를 사실상 철회한 금년부터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

인교육이라는 교육현장을 무시하고 예체능 쪽의 과목을 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과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의 해결 역시 고등학교에 '한정된 자율권'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 과목별 등차를 두는 방법이지요. 예컨대 과학고등학교라면 국어에 대한 내신비율을 낮출 수 있지요. 인문계 고등학교일지라도 입지조건과 역사성에 비추어 특정과목을 높이고, 줄일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사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현행 내신산정방식에 따라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우수하다는 평가도 되지만, 동시에 특징없는 학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 :** 고등학교에서의 석차만을 가지고 등급을 산정하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서울대에서는 40% 반영하고 한 등급간 5점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성적 반영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대학에서 수험생의 세부적인 학업 내용과 성취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석차만을 가지고 입시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외형상으로만 입시에 40%를 반영하여 모든 학생에게 기본점수를 약 30% 부여하는 방식 및 채수의 경우에도 등급이 고정되는 경직성 등은 현 제도가 가지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성적 반영의 외형을 줄이고 대학에서 수험생의 세부적인 학업내용과 성취도를 고려하여 고교 내신성적을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 :** 현행 고교내신 성적이 대학지원자의 수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체 성적에 대한 내신 등급 이외에 지원자에 대한 각 과목별 평가와 듣기나 강점 등의 요소들이 두루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학으로서도 각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학생을 다양한 평가 요소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선발에 반영하는 비율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김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규 :** 지역별 학교별로 수학능력 차이는 분명

하게 존재하는데 획일적인 방법으로 내신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40% 이상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대학 자율에 일임하든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재 :** 내신성적 반영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입시의 중요한 기능이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볼 때 내신성적의 반영은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간의 편차가 크고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의 상관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50명 정원인 고등학교의 5등급과 500명 정원인 고등학교의 5등급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교 내신성적 반영비율 40%는 너무 높다고 생각되므로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서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하여 불만 요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염 :** 포항공대에서는 특차전형은 수리탐구영역 성적에 100% 가중치를 부여한 수능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을 60 : 40, 일반전형은 수능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본고사와 내신성적으로 2차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본고사와 내신성적을 50 : 50 비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자격으로는 특차·일반전형 모두 내신 성적을 각각 3등급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신이 3등급 이내에 들지 않더라도 각종 수학 또는 과학경시대회 입상자나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출신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고교내신 제도는 고등학교간 우열의 차를 감안한다면 정확한 잣대는 아니나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시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며 본 대학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 특차에서는 88개 고등학교 그리고 본고사에서는 103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합격하였습니다.

내신성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5. 대학별 고사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대학별 고사는 13년만에 부활된 제도입니다. 이는 대학이 부분적으로나마 학생선발권을 되돌려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94년도 입시에서 대학별 고사는 내신이나 수능시험 성적보다도 합격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본고사에서 실제로 국어나 영어, 수학 점수는 합격자들간에도 점수차가 커서 분명한 변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내신이나 수능의 점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능시험이 그 시험 형태에서 객관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라면, 대학별 고사는 주관식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어서 고차적 정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 국어, 영어 등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고등학교 교육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출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출제 역량이 부족한 대학에서 준비 없이 본고사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준이 비슷한 대학끼리 그룹을 지어서 공동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수도 제한 없이 대학에 완전히 일임해야만 대학 본고사가 특성있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백 :** 대학별 고사는 대학에서 수학 적격자를 변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서 대학별로 균질적인 응시생에게 시험의 방법 및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대학수학 적격자를 선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사과목을 4 과목으로 정하여 시

행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에서는 이번 제도를 결정한 이후 입시센터와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제, 채점, 전산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입시관리 방안에 관하여 국내외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비축하는 한편, 출제 및 사정 관리에 필요한 전산 기자재와 인쇄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출제 기본방침을 지난해 4월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채점 역량을 점검하고 고등학교 및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5월과 8월 2차에 걸친 실험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전국의 고등학교에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시험의 출제에는 본교 교수 50여 명이 12월 25일부터 별도의 장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참여하였고, 교직원 40여 명도 합숙생활을 하면서 직접 문답지를 인쇄하였으며 270여 명의 교수가 채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방향은 단순암기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영역의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과 수준에서 시험 대상 집단의 실력 차등을 정확히 변별하기 위하여 문제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였으나, 대학별 고사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와 의외성이 높은 문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김준 :** 대학별 고사의 시행 여부나 고사 과목, 시험문제의 패턴 등 모든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하는 대학으로서의 긍정적 측면은 입학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준다는 점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염 :** 원래 포항공대의 입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적성을 평가하되, 특성상 소수의 기초과목에 대해 주관식 위주의 본고사



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대학별 고사의 장점은 수능에서 다루지 못하는 창의성 있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의 적성을 판단하여 대학이 원하는 부류의 학생을 선발하는 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고사 준비는 1992년 9월부터 시작하여 본고사출제 연구위원회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6번에 걸친 모의고사를 통해 본고사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1993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학, 물리, 화학 전공수가 3박 4일 혹은 2박 3일로 본고사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문제 은행을 만들었으며 본고사 전에는 8박 9일간 수학, 물리, 화학교수 등 12명이 합숙하여 출제에 임하였습니다.

출제원칙은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되 난이도를 평균 60점대로 하며, 변별력을 감안하고 문제개념은 교과과정 내이나 창의력 및 응용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본고사 결과 만점이 1명 나왔으며 최종 180명의 합격자 본고사 평균은 134.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병** : 대학별 고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학생을 어떤 기준에 의해 뽑느냐 하는 것은 대학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예컨대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학력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특별활동, 취미, 심지어 학부형이 하버드 출신이냐 하는 것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父子가 동문이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보다 강하다는 논리지요. 반대로 예일 같은 곳은 철저히 학력점수와 고교내신만으로 선발합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사회적 평가는 하버드가 앞서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는 길은 본고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국대의 경우만 해도 당면한 국제화를 염두에 둘 때 영어나 컴퓨터 등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또 민족적 자존심의 고양이라는 점에서 철학·역사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본고사 관리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제의 정당성, 채점의 공정성, 관리의 엄정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대학 자율의 시금석이 아닐까요? 만약 적당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연히 도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규** : 학생선발권은 대학으로 위임되어야 한

다는 측면에서 대학별 고사는 앞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남대에서는 94학년도 대학별 고사 실시를 위해 재직교원과 대구권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이 실시하는 쪽을 희망하였으나 시험과목수를 무리하게 지정하였고, 출제준비에 따른 제반상태가 불량하여 유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신입생 선발시험에는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재** :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학별 본고사는 선시험 후지원에 따른 눈치작전을 불식시키는 데 좋은 제어장치가 될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고사는 선다형인 수능시험에 대한 좋은 보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본고사를 치른다는 것이 대학에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전남대학의 경우 지난해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본고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치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고사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고사과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는 국어, 영어 본고사에 수능시험의 수리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자연계는 국어, 수학 본고사에 수능시험의 외국어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 6. 이번 입시에서는 특차전형을 실시한 대학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차전형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 : 특차전형은 수학능력시험의 고득점자가 재수를 하는 데서 오는 좌절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차에 합격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일부 대학에서 수능 고득점자를 모으기 위해 비교육적인 방안을 쓰는 것은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백** : 특차전형을 서울대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특차전형제도를 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가 각 대학에 고르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에게만 대학별 고사 등을 거치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것, 대학별 고사의 독자적인 평가 기능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김준** : 특차전형은 수험생과 대학 양편 모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으로서는 신입생 선발의 폭이 다양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충분히 특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도리어 수험생이나 진학 지도교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염** : 포항공대의 경우 특차전형으로 정원의 40%를 모집하였으며 수리탐구분야에 가중치를 100% 부여하였습니다.

수능성적 측면에서는 우수학생을 선발한 것은 장점이나, 우리 대학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특차전형 합격자와 본고사 합격자 간에 대학수학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입시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1987년도 예를 보면 입학생의 입시성적과 입학후 대학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0.106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고, 이번 입시의 경우 수능성적과 본고사의 상관관계는 수능성적 180점 이상의 경우 0.298, 본고사 합격자(수능평균 179.3점)의 경우는 0.381, 전체 수험생의 경우(수능평균 175.2점) 0.443으로 고득점일수록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수가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봅니다. 수리탐구영역과 본고사 간에도 상관관계가 각각 0.313, 0.442, 0.377로 역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병** : 저회도 특차전형을 치렀습니다만 일장 일단이 있더군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전형자에게 그만큼 기회를 박탈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일부 대학에서 실시했던 전체학과 특차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몇몇 학과만을 특차전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 입시 과열현상을 분산시키고, 수험생에

게 응시기회를 확대시켜 조기에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학생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인 일면이 없지 않으나, 시행결과를 보면 특정 대학 일부 인기학과에만 집중 지원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입시관리상의 혼선만을 초래한 인상입니다.

**김재** : 특차전형은 수험생들에게 1회의 응시 기회를 더 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대학측에는 학생 선발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적인 의미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 7. 이번 입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는 복수지원의 허용이었습니다. 복수지원제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 : 복수지원은 입시생에게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나 또한 낭비가 많은 제도입니다. 수석 합격생이 다른 대학으로 가버림으로써 대학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경우, 그 대학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까? 극심한 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입시 일정을 그룹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일정을 정하기 위해 대학도 눈치를 보고, 학생도 눈치를 보는 입시제도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대학간 협의체에서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94학년도에 대학 본고사를 도입한 대학을 A그룹으로, 95학년도에 대학 본고사를 도입할 대학을 B그룹으로, 수능시험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을 C, D그룹으로 구분해서 입시 일정을 차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 :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복수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전기 및 후기 제도하에서 실시한다는 것과 미등록으로 인한 충원 문제 등은 역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준** : 복수지원제도의 본래적 취지는 수험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

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가 올바르게 살려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차별화 내지 특성화와 수험생의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에 따라 수직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가 살려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엄청난 수의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의 지명도와 학과의 인기에 따라 자동이동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병 :** 복수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의 복수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스무 개 대학 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엔이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특정 날짜에 대학이 물리는 것은 획일현상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각기 다른 날짜를 정해서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문호를 넓혀줘야 합니다. 이번에 미등록사태가 나게 된 근본원인은 등록금 환불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입시 날짜는 다르지만 등록날짜는 통일하는 것입니다. 또 등록한 것은 절대 환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육부가 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A,B,C 정도의 세 그룹으로 입시 날짜를 조정해 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요. 최소한 전기 3회, 후기 3회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규 :** 이번 입시의 최대 장점으로는 복수지원의 허용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살펴보면,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소재 대학은 학생유치 입시 전략차원에서 수험생을 타대학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형일을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지원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 내에서 전형일을 달리한 경우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특정대학은 지원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 이중합격자로 인해 지방대학은 환불 및 후보자 충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복수지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됩니다.

**김재 :** 특차전형과 함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그러나 복수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수 지원과 대량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처리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일일이 전화나 전보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게시판에 일률적으로 공고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입니다.

**염 :** 복수지원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매년 누적되는 우수학생 제수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지난 입시에서 상위그룹 대학 중 본고사를 치르면서 복수지원제를 택한 대학으로 충분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80명 최종 본고사 합격자 중에는 서울대 불합격자들이 상당수 있는가 하면 본대학 충원권 밖에 있는 탈락자 중 서울대 합격자도 상당수 있었음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대학 합격자 중엔 복수지원을 함으로써 본인이 소신있게 자기 전공학과를 택해 대학을 정한 사례는, 대학간판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과와 관계없이 합격되면 등록하던 과거에 비해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수험생이 대학의 간판보다는 전공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방향의 시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입시의 복수지원제도는 선발기간이 짧아 복수지원제를 택해 본고사를 치른 대학은 입시관리일정이 촉박해 큰 애를 먹었습니다. 지난 입시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1월 6, 7일로 입시일자를 발표했는데, 이 경우 예비소집, 본고사, 면접을 감안하면 나홀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로한 수험생이 쉴 틈도 없이 곧 이어 다음 입시를 준비하는 불합리성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복수지원제는 대학이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선발기간을 길게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복수지원제도에 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첫 등록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원이 끝났을 때 어떤 수준의 학생이 합격됐느냐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 겨우 반년에 걸쳐 조기합격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것

은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정한 복수지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수학적 능력과 원하는 전공으로 학교를 택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대학이 참여하여야 됩니다.

## 8. 앞으로 대학입시 제도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전 : 정부는 대학 입시를 명실공히 대학에 일임해야만 합니다. 입시 과목은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은 미국의 ETS와 같이 전문성을 갖는 기구로 그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구로는 관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와 개발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70만 입시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관으로서, 그 전문성이 너무 취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도 관례적으로 입시를 1년에 한번씩 치르는 행사로 볼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연구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시를 연구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배정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병 : 대학입시는 백년대계입니다. 해방후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혼란과 요령주의만을 남겼고 대학은 대학대로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서로 자신의 정당성만을 외쳐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외국 대학의 분교 허용, 입시생의 현격한 감소 등을 염두에 둘 때,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은 지금 중대한 존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牛骨塔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던 과거 일부 대학의 몇몇 파행적 운영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기여해 온 긍정적 요소 또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학 없이 오늘의 경제발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학 없이 한국의 문화가 선양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학은 대한민국의 동량이고, 또 미래에도 그러할 것

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몫이고, 사립대학은 그 국가발전의 중대한 초석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정원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행정적 지시만을 능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과감한 재정투자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대학도 이제는 '개성시대'입니다. 잡화상식의 운영이 아니라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학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건강한 대학이 되려면 재정자립, 교수확보, 실험실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 : 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고 대학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시제도가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국민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중등교육의 장래를 전적으로 대학입시제도에 의존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활용 방법, 대학별 고사 과목수 결정, 대학의 전·후기 결정, 입학고사일 결정 등 입시제도의 모든 사항을 대학에서 결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도와주고, 대학에서는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대학은 입시제도에서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 :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향은 대학 자율권의 신장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명제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기본 방향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당국은 입시제도 역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의 일환임을 인식

하고 입시제도를 대학 특성화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극 교육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정상화에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 :** 아무리 좋은 입시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교육환경 및 국민의 의식구조 전환, 관리운영체계가 부실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 입시제도의 장점은 그대로 존속유지시키고 첫째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정부, 대학, 일선고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하나하나 수정, 보완하여 입시제도를 정착,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 :**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능시험은 이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주관식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보완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염 :** 앞으로의 대학입시제도와 운영은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처음 실시한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에 의한 특차선발과 복수지원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장점을 살려 보완, 수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에 자율성만 부여하고 지난 입시제도가 보완이 되면 많은 문제가 개선되리라 봅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 입시엔 각 대학마다 자기 다른 입시원서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으며 이는 수험생에게도 피해가 왔습니다. 교육부가 입시원서 하나만이라도 통일되게 만드는 작업은 작은 일 같지만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성적과 수능성적도 전산화에 앞서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입학정원은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학에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에 맞추어 복수지원제로 충원하려면 대학은 많은 고충을 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도 대학교육에 대한 성숙된 이해가 필요하며 간관위주보다는 내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은 서울대 모방보다는 몇 과만이라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언론은 복수지원제의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하여 일차 합격자 현황보다는 충원이 끝나고 합격생이 적정한 실력을 갖춘 학생인가 아닌가를 따져주는 것이 입시로 고달픈 많은 대학에 마음고생을 덜 시킬 것입니다. 복수지원제에서 1차합격자 중 결원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 비율로 대학의 우열을 나타내는 식의 보도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